

KCCI 브리프\_ESG\_제42호

# KCCI ESG NEWSLETTER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OCT. 2024

### 전문가 기고

최악주와 ESG 투자

### ESG 주요 현안

EU 순환경제 법안동향 및  
대응 전략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 전문가 기고

# 죄악주와 ESG 투자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죄악주(sin stocks)’는 담배, 주류, 카지노, 총기와 무기 산업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식을 말한다.”



‘죄악주(sin stocks)’는 담배, 주류, 카지노, 총기와 무기 산업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식을 말한다. 이들 산업은 엄연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경제가 불황인 때조차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투자자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약점도 있다.

‘ESG 투자’는 기업의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중시하여, ESG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 금융기관은 물론, 자산운용사들조차 ESG 투자를 강조해 왔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펀드 중 하나인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 회장은 4년 전인 2020년 1월 투자대상 기업 ‘CEO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ESG 성과가 나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ESG 투자는 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 및 업종에 투자를 기피하는 데서 시작했으므로, ESG 투자자는 죄악주 투자를 자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이제 죄악주 리스트를 블랙리스트와 동일시하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골드만 삭스 애널리스트들이 2024년 8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들이 점점 더 많은 석유, 가스 및 광산 주식을 ESG로 등록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한 금융 공시 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제8조(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을 촉진하는 펀드: light green)와 제9조(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펀드: dark green)을 기준으로 분석했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12개월 전보다 현재 석유, 가스 및 광업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자산 규모가 7조 달러 이상(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추정)인 SFDR 제8조 펀드 중 51%가 하나 이상의 석유 및 가스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의 47%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골드만은 분석했다. 금속 및 광업의 경우에도 SFDR 제8조 펀드 중 46%가 해당 산업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SFDR 제9조 운용사의 경우에도 32%가 금속 및 광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약 5~6%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골드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8조와 9조 펀드에서 총 170억 달러가 유출된 반면, 비지속가능 주식 펀드(SFDR 제6조 범주)에서는 680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ESG 투자가 최근 몇 년 동안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평가와 환경 또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ESG투자가 광범위하게 후퇴하는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SFDR 자체도 현재 개편 작업 중인데, 개편 후에는 전환 투자를 더 많이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에 논란이 되었던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자력이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죄악주와 ESG 투자

더 큰 변화는 무기 산업에 대한 투자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2024년 9월 2일자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ESG 펀드, 방위산업 보유액 두 배 이상 증가”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모닝스타 다이렉트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경, 사회, 거버넌스 문제에 초점을 맞춘 유럽과 영국의 펀드 중 약 3분의 1이 현재 방위산업 분야에 77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의 32억 유로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항공우주 및 방위 기업을 5% 이상 보유한 유럽 ESG 펀드의 수는 지난 2년 동안 22개에서 66개로 세 배로 증가했다고 하며, MSCI 유럽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지수는 주요 계약업체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2022년 초 이후 1.8배 상승했다고 한다. 방산 테마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펀드의 보유액도 2022년 1월 58억 달러에서 2024년 7월 176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블랙록의 iShares ESG Aware MSCI USA에는 미국 방산업체 RTX, 노스롭 그루먼, 하니웰이 포함돼 있고, RTX와 노스롭은 모두 미사일과 로켓 모터 등 미 국방부의 주문으로 수혜를 입었다고 한다.

‘죄악주’라고 부르며 투자를 기피했던 업종에 대해 늘어나고 있는 투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펀드들은 돈 냄새가 강렬한 산업을 지나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 한 가지 변명이라면 전쟁의 피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편에선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ESG 리스크가 감소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전쟁 피해당사국을 돕는다는 이유는 비난을 피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 회의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SG 주요 현안

# EU 순환경제 법안동향 및 대응 전략

“EU는 탄소중립, 친환경, 무독성 물질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대원칙으로 한 환경규제를 하고 있다.”

## I. EU 순환경제 법안 동향

### [신순환경제 실행계획 추진의미]

EU는 탄소중립, 친환경, 무독성 물질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대원칙으로 한 환경규제를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 신순환경제 실행 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기존의 제품생산과 폐기를 반복하여 환경오염을 반복하는 선형경제를 탈피하고 원자재 취득단계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기준구조



자원의 친환경적 사용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환경제 원칙이 경제 전반에 적용되면 2030년까지 EU의 GDP가 약 0.5% 상승하고 신규 일자리는 70만개 창출될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재생에너지 사용과 함께 탄소중립의 매우 중요한 축이며, 자원부족문제와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환경영향 문제도 포함되므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에서 매우 중요한 명제라고 볼 수 있다.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은 크게 지속가능한 제품정책, 순환형 모델로의 이행 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의 정책 그리고 폐기물 감축 등 3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은 2015년에 전자제품 폐기물 지침, 폐기물 지침, 포장 폐기물 지침을 포함하는 내용의 EU 순환경제 패키지를 채택하였으며, 2018년에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정책인 플라스틱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전 생애 관점에서의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 EU 그린딜 EU GreenDeal, 2019

###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20)

지속가능한 제품정책	순환성 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정책	폐기물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제품설계</li> <li>-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의 권한 강화</li> <li>- 생산과정의 순환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제품 - Circular Electronics Initiative</li> <li>- 배터리 - Battery Regulation</li> <li>- 자동차 - End of Vehicle Directive</li> <li>- 포장 - Packaging &amp; Packaging Waste Regulation</li> <li>- 플라스틱 - Strategy for Plastics(+un플라스틱 협약)</li> <li>- 섬유 - Strategy for Sustainable &amp; Circular Textiles</li> <li>- 건설 - Strategy for a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 -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li> <li>- 식품/물/영양소 - Farm to Fork Strategy - Water Reuse Regulation -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Pla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억제, 분리수거 시스템, 유해 폐기물 안전성 제고</li> <li>- 제품내 재활용 소재 함유량 요건</li> </ul>



# EU 순환경제 법안동향 및 대응 전략

EU는 제품 환경영향의 최대 80%가 설계단계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EU는 순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품설계에 대한 정책인 2009년 발효된 에코디자인 지침 개정을 추진하였고, 최종적으로는 2024년 7월 18일부터 개정안이 발효됐다.

에코디자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 1. 지속가능한 제품정책

### 1) 지속가능한 제품설계

#### (1) 에코디자인 규정(ED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2022))

에코디자인 규정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내구성과 재사용가능성, 업그레이드와 수리가능성, 탄소 및 환경발자국, 예상되는 폐기물의 생성 등을 요구하고, 디지털 여권, 태그, 워터마크 등의 표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판매 내구제 폐기시 폐기 제품의 양과 폐기에 대한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섬유산업의 무분별한 폐기를 막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구분	에코디자인 지침 (ECO-Design Directive(2009))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2022))
대상	EU시장 내 에너지 사용제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음식, 의약품, 사료, 수의약품, 동식물, 유기물 등은 예외)
요구 조건	자원의 소비와 환경 배출, 폐기물 발생, 자원의 재활용 및 재생 가능성 등	내구성, 신뢰성, 재사용가능성, 업그레이드/수리가능성, 유지보수 및 재가공 가능성, 우려물질존재, 에너지 및 자원효율성, 재활용 소재비율, 재제조 및 재활용 가능성, 탄소 및 환경 발자국, 예상되는 폐기물의 생성
정보 제공	소비자를 위한 제품의 포괄적인 정보를 명시	디지털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태그, 워터마크 등의 표식을 통해 제공
추가 요구 사항		미판매 내구제 폐기시 폐기 제품의 양과 폐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함 (중소기업 제외) 생산, 유통, 판매자는 필요시 집행위에 규정 적용을 같음하는 자율규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관리, 감독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2) 소비자 권리 강화

#### (1) 제품수리 촉진을 위한 공동규칙

두번째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은 소비자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는 제품 수리 촉진을 위한 공동규칙에 관한 지침을 유럽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EU 역내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과 제품 수리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그린클레임

## ESG 주요 현안

# EU 순환경제 법안동향 및 대응 전략

지침은 유럽 연합 전역에서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전 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와 기타 환경 데이터 분석 및 적합성 인증서가 뒷받침하는 환경 주장에 대한 제3자 검증 그리고 물리적 문서 QR 코드 웹 링크와 같은 옵션을 통해 환경 주장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 등 환경 규정이 입증된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탄소 상쇄주장의 경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잔여배출량에 대해서만 상쇄 제도를 적용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 워크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또한 그린클레임 지침의 요건에서는 심각한 위반의 경우 기업 연 매출액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의 권리 강화

구분	제품수리 촉진을 위한 공동 규칙에 관한 지침 (Directive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대상	가정용 세탁기 및 건조기, 가정용 식기세척기, 냉장기기, TV/디스플레이, 진공청소기, 서버 및 데이터저장기기 등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수리요청 권리고지, 수리보장기간 연장, 표준화된 수리정보 양식 제공, 독립수리업체의 예비부품, 수리관련 정보 및 도구에 접근 보장 등 요구

구분	그린워싱 지침 (Green Claim Directive)
적용범위	명시적 주장을 대상으로 적용됨 -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에서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명시적인 환경적 영향, 측면, 성능을 주장하는 경우
주요내용	명시적 친환경 주장의 입증 주요 요건 - 환경적 영향, 측면, 성과를 수명주기와 모든 환경적 측면화 영향을 고려해야 함 과학적 증거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입증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해야 함 - 물리적 문서, 웹 링크, QR코드와 같은 경로를 통해 환경 주장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환경 라벨링의 경우 명시적, 비교적 친환경 주장의 입증과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검증 또한 필요함 - 탄소 상쇄 주장의 경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잔여 배출량에 대해서만 상쇄제도를 적용, 탄소제거인증 프레임워크에 따라 인증되어야 함
페널티	위반할 경우 공공조달에서 제외되거나 기업 연간 매출의 최대4%이상의 벌금이 부과됨

### 3) 생산과정의 순환성

제생산과정에서의 순환성은 산업의 탄소중립과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순환자원을 생산에 투입하고 이력을 추적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신뢰성 있는 검증시스템을 통해 친환경 기술의 확대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환성은 지속가능한 제품의 설계와 소비자의 권리를 잇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EU 순환경제 법안동향 및 대응 전략

## 산업과정의 순환성

- 산업계가 주도하는 보고, 인증시스템을 개발하여 산업 공생을 촉진
- 산업배출지침의 검토 및 최적 가용 기법의 문서에 순환경제를 통합
- 바이오 경제 실행 계획의 시행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bio-based 분야를 지원
- 자원의 이력 추적 및 맵핑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 촉진
- EU환경기술 검증 계획을 EU인증마크로 등록하여 신뢰성 있는 검증시스템을 통해 녹색기술의 도입을 촉진

## 2. 순환성 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 정책

### 1) 배터리 산업

배터리의 경우 다양한 산업에서의 전동화 추세와 에너지 저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제조 공급망에서의 윤리적 환경적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EU 배터리 규정이 제정되었다.

### 배터리

		원료공급사	제조사	소비	폐기	
↑ mandatory          ↓ voluntary	에코디자인 규정 자원순환 유해물질 전과정평가 (LCA)  EU배터리규정	공급망실사	재활용소재함량 유해물질제한 EU: RoHS/ REACH/PFAS US:CA65/ TSCA/PFAS 재활용소재함량 코발트(16→26%) 납(85→85%) 리튬(6→12%) 니켈(6→15%)	내구성 수리가능성 업그레이드가능성  라벨링 (유해물질, 분리수 거기호, QR코드 등)	재제조&재활용 폐기물관리  폐배터리 회수	탄소발자국 디지털여권
	분쟁광물	EU:Conflict Mineral규제 US:Dodd-Frank법				
	광물산업연합  정부조달, 민간 시장요구사항	책임광물이니셔티브  공급망 실사(RBA)	리튬,코발트 등의 재활용함량 예)애플,리튬(2030), 코발트(2025) 100%재활용 목표  Closed loops 구축	폐기물매립 제로화  폐기물처리	탄소 & 환경 발자국	

### 2) 전자제품 산업

전자제품 산업 또한 에코디자인 규정 및 서클러 일렉트로닉스 이니셔티브 제한 하에서 배터리 산업과 큰 유사성을 보이며 특히 완제품의 자원순환적 특성인 수리할 권리와 소



## ESG 주요 현안

# EU 순환경제 법안동향 및 대응 전략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권리, 공통 충전기의 도입, 폐가전제품의 수집 처리 그리고 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 등의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인 이피트나 아함 등에서 전자제품의 저항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글로벌 제조사들은 폐쇄 루프 시스템인 CLOSED LOOP 도입을 통해 재활용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유해물질의 추적을 원활히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품질과 비용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의 투명성과 협력도 CLOSED LOOP에서의 핵심이 될 것이다.

## 전자제품

		원료공급사	제조사	소비	폐기	
manda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코디자인 규정</li> <li>-자원순환</li> <li>-유해물질</li> <li>-에너지</li> <li>-전과정평가 (LC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활용소재함량</li> <li>유해물질제한</li> <li>EU: RoHS/REACH/PFAS</li> <li>US:CA65/TSCA/PFA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구성</li> <li>수리가능성</li> <li>업그레이드가능성</li> <li>ErP 에너지라벨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제조&amp;재활용</li> <li>폐기물관리 (WEEE)</li> </ul>	탄소&환경 발자국 디지털제품 여권
	- EU배터리 규정	공급망실사, 재활용소재함량, 라벨링(유해물질, 분리수거기호, QR코드 등), 탄소발자국, 폐배터리 회수				
	- 분쟁광물	EU:Conflict Mineral규제 US:Dodd-Frank법				
volunt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산업연합</li> <li>정부조달, 민간 시장요구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광물이니셔티브</li> <li>공급망 실사(RB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PEAT/AHAM규격</li> <li>- 재활용/바이오소재함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효율성</li> <li>에너지&amp;자원 효율성등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매립 제로화</li> <li>폐기물처리</li> </ul>	탄소 & 환경 발자국

Closed loops 구축

### 3)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에서의 환경 규제는 CO2 규제 사용 단계에서의 배출가스 규제 그리고 ELV라는 폐차의 자원순환 규제와 일부 국가의 실내 공기질 규제 정도로 비교적 규제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공급망에서의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가 많아지면서 전자산업만 가입하던 RBA에도 자동차 OEM들이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자동차의 친환경 인증 규격에 대한 니즈도 발생하면서 여러 산업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의 책임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자동차 산업 역시 클로즈 루프가 적합한 산업군으로 자발적인 노력하에 많은 성공 사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EU 순환경제 법안동향 및 대응 전략

## 자동차

	원료공급사	제조사	소비	폐기	
mandatory	에코디자인 규정 -자원순환 -유해물질 -에너지- -전과정평가 (LCA)	재활용소재함량 유해물질제한 EU: RoHS/REACH/PFAS US:CA65/TSCA/PFAS	내구성 수리가능성 업그레이드가능성  ErP 에너지라벨링	재제조&재활용 폐기물관리 (WEEE)	탄소&환경 발자국 디지털제품 여권
	- EU배터리 규정	공급망실사, 재활용소재함량, 라벨링(유해물질, 분리수거기호, QR코드 등), 탄소발자국, 폐배터리 회수			
	- 분쟁광물	EU:Conflict Mineral규제 US:Dodd-Frank법			
	- 광물산업연합  외부 요구사항	책임광물이니셔티브  공급망 실사 (RBA, Driving Sustainability)	전과정평가 데이터베이스 및 친환경 인증규격(TYPE1)개발 재활용소재함량	폐기물매립 제로화  폐기물처리	탄소 & 환경 발자국
voluntary			Closed loops 구축		

### 4) 섬유 산업

섬유 산업은 물과 원재료의 사용량이 식품, 주택, 수송에 이어 네번째로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 중 다섯번째로 많은데 폐기된 섬유 제품 중 재활용이 되는 것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 환경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다. 특히 패스트패션의 유행으로 섬유제품의 폐기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유럽에서는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를 위한 EU 전략을 공개했다.

이 전략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 전략은 첫째, 의류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내구성 개선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일 섬유를 활용하는 등 디자인을 개선하는 전략이다. 두번째 전략로 녹색 주장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섬유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섬유가 아닌 페트병 등을 재활용해 섬유를 만드는 것은 제한적인 재활용으로 순환 모델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섬유 대 섬유 재활용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는데 이는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세번째 전략은 디지털 제품 여권을 도입해 순환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생산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마지막 전략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의 도입을 제한하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EPR의 도입을 통해 생산자의 책임이 생산과 소비 단계를 넘어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합성섬유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예정이다.

## ESG 주요 현안

# EU 순환경제 법안동향 및 대응 전략

## 섬유

	원료공급사	제조사	소비	폐기		
mandatory	에코디자인 규정 자원순환 유해물질 전과정평가 (LCA)		재활용소재함량 유해물질제한 EU: RoHS/REACH/PFAS US:CA65/TSCA/PFAS	내구성 재사용가능성 수리가능성	미판매 및 재고 제품의 폐기금지	탄소&환경 발자국
	- 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	사회책임 (인권/노동권)	- 미세플라스틱 → 생산자책임 재활용 (EPR)	세탁기필터(프랑스) 그린클레임 요건	섬유 to 섬유 재활용	디지털제품 여권
voluntary	- 자발적 연합 외부 요구사항	ZDHC (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 - 화학물질 등록 - 폐수관리 - 대기배출관리 - 자원관리	Cascale - 환경관리 - 기후변화 - 노동관행 Higg Index - 자원관리 TEXTILE Exchange - 오가닉소재 - 재활용소재 - 소재인증 섬유 to 섬유 재활용	폐기물매립 제로화		탄소 & 환경 발자국

### 5) 건설 산업

건설 산업은 EU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재료 채굴 건축자재의 제조 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회원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5%에서 12%로 추정된다. 건물의 순환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된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 전략 수립은 건축 생산물에 대한 재활용 자재 함유량 요건에 대한 규칙 건물의 내구성과 수리성 개선 추진 및 디지털 기록 개발, 건설 폐기물에 대한 자재 회수를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과 복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전략은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뉴욕 도쿄 서울 등의 도시에서는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는 등의 탄소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부동산의 ESG 평가로 활용되는 GRESB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리드, G-SEED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이를 만족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물론 건축 자재 실내 공기 질 개선, 재활용 소재 함량 확대, 독성평가 등 공급망에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건설 및 건물

	원료공급사	제조사	소비	폐기		
mandatory	에코디자인 규정 - 자원순환 - 유해물질 - 전과정평가 (LCA) - 에너지		재활용소재함량 유해물질제한 EU: REACH US:CA65 - 미세플라스틱	내구성 수리가능성 탄소배출거래제(ETS)	폐기물관리	
	- EU Strategy for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 -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재활용 자재 함유량 요건)	자원&에너지 효율성, 토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복원 내구성, 수리성 디지털 기록개발		철거폐기물 회수율		탄소&환경 발자국 디지털제품 여권
	외부 요구사항	탄소&환경 발자국	GRESB(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 건축물인증 - EU BREEAM, DGNB - US LEED, Fitwel, Well Building - 한국:G-SEED	폐기물매립 제로화		
voluntary		재활용소재함량	실내공기질(Indoor Air Quality) 자재독성평가			



# EU 순환경제 법안동향 및 대응 전략

## 3. 폐기물 감축

순환경제 실행 계획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과 발생한 폐기물을 고품질의 재료로 가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폐기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분리수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폐기물이 가질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파악 또한 필요하며 함유가 된 경우 개선 제외 등의 실행도 필요하다. 또한 정책당국에서는 재활용 원료 함유량에 대한 상세한 요건을 세우고 기업들의 제품 생산 시 재활용 함유량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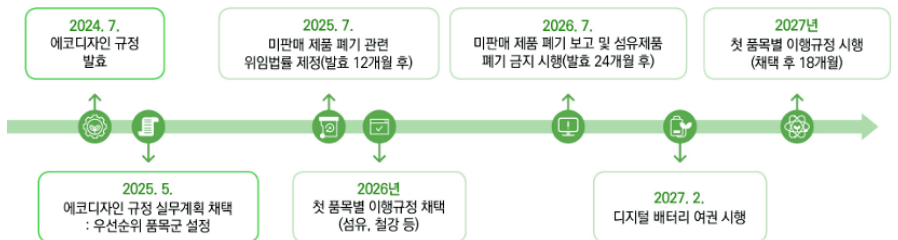
### 폐기물 감축

- 분리수거 시스템의 조화를 추진 효과적인 조합, 수집지점의 밀도 침 접근성, 도식 계획 고려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정(Regula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개정 및 유해폐기물 분류, 관리 개선을 통해 2차 원료의 안전성 제고
- 재활용 원료에서 건강 및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의 존재 최소화'
- 유해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 개선
- 특정 폐기물 흐름에 대한 EU의 End of Waste 기준 개발 및 표준화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품 내 재활용 원료 함유량 요건 도입
- 폐기물 수송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을 재검토하여 제3국에서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의 수출제한

## II. 대응방안

빠르면 2027년부터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에코디자인 규정에 기반한 품목별 이행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들의 지속적인 동향파악과 신속한 대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가장 빠르게 품목별 이행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하며, 품목별 이행규정제정 과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이행규정에 따라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식별하고 공급망 내 다른 주체들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에코디자인 규정 관련 예상 연표



자료 : CLRPASS(2024)

# EU 순환경제 법안동향 및 대응 전략

순환경제에 대해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산업에 대한 규제와 외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내외부 요구사항 파악

먼저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의 규제와 바이어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야 하며, 둘째로는 글로벌 ESG공시와 순환경제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EU의 규제(에코디자인규정, 배터리규정, 그린워싱 등)를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각국 정부 조달시 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 2. 순환경제 표준에 대한 이해

우리가 적용하려는 순환성이 정확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표준에 속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 3. 사업장 & 제품내 적용 가능성 분석

친환경 소재로서의 조건인 기능, 안전, 친환경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 4. 공급망과 외부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투명성 확보

공급망의 2,3자 감사를 통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공급망 관리에 IT기술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를 하며, 글로벌 그린워싱 규제를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과 제품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EU순환경제 법안동향과 대응전략(UL솔루션즈, 전형석부부장) 대한상의 ESG 온라인 강의 7탄
2. EU에코디자인 규정발표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황준석연구원
3. 순환경제의 의미 아더 맥아더 재단
4. EU환경규제 최신 동향, 화우, 2024.4월
5. 아더 맥아더 재단, 순환경제
6. <https://cirpassproject.eu/> CIRPASS 프로젝트



## E

### 환경



#### 한수원, 체코와 손잡고 유럽 청정수소 사업 진출

일렉트릭파워 | 2024.09.23 <https://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94>

#### 무선이어폰, 손선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 재활용 대상 된다...제조·수입업체가 수거·재활용 의무

경향신문 | 2024.09.24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409241540001>

#### DS단석, 연 30만톤 규모 폐식용유 에쓰오일에 공급

조선비즈 | 2024.09.26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4/09/26/JUJZMUSICZFLLM2UJBSQRD5N6E/>

#### “화학적 재활용은 그린워싱” 美 캘리포니아주, 석유 기업 엑손모빌 고소

그리니엄 | 2024.09.24 <https://greenium.kr/news/57293>

#### 한중일 환경장관 공동합의문 채택. “동북아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적극 협력”

전자신문 | 2024.09.30 <https://www.etnews.com/20240929000076>

#### 전 세계 해운업, 탄소세 도입 가시화... IMO, 2025년 최종 채택 예정

임팩트온 | 2024.10.08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40>

#### EU 27개 회원국 투표 결과,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최대 45.3% 확정

그리니엄 | 2024.10.07 <https://greenium.kr/news/57757/>

#### ESG로 밸류업하는 글로벌 기업... “韓, OECD 꼴찌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전자신문 | 2024.10.10 <https://m.etnews.com/20241010000386>

#### “제주, 2035년 탄소 중립 실현... 재생 에너지 비율 70%대로”

세계일보 | 2024. 10. 10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009513623>

####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법으로 못 박는다

매일경제 | 2024.09.25 <https://www.mk.co.kr/news/economy/11125064>

####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주한 메타, 애플...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관건

임팩트온 | 2024.10.02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93>

#### 현대백화점, 고객 개인정보 활용 현황 공개

조선비즈 | 2024.10.09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4/10/09/RyAHl3I6SRASBBXS4S6YZJ3P2Q/>

#### TCFD, TNFD에 이은 TISFD, 불평등과 사회 다룬다...사회 공시 표준 나오나

임팩트온 | 2024.10/11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61>

#### 30대 기업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현주소는?

더나은미래 | 2024.10.11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99383>

#### 탄소배출량·밸류업... ‘공시 리스크’ 커진다

한경ESG | 2024.09.2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298861>

#### 국내 NGO 그룹, 2026년 기후공시 의무화 요구...UN PRI도 성명 지지

임팩트온 | 2024.09.24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30>

#### 삼성전자에 5대 금융지주도 나섰다...조단위 자금 지원해 중기 돕는다는데

매일경제 | 2024.09.24 <https://www.mk.co.kr/news/economy/11123985>

#### 김수민 한투운용 ESG운용부장 “거버넌스 개선 기업 주가 더 오를 것”

연합뉴스 | 2024.10.07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2173500008>

#### “인증 체계도 없이 공시부터하라니”...ESG공시 압박에 상장사 반발 '빚발'

전자신문 | 2024.10.07 <https://www.etnews.com/20241007000242>

#### 美 대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이종중대성 평가 크게 늘어

ESG경제 | 2024.10.08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3>

## S

### 사회



## G

### 지배구조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녹색채권	280	278	279	289	290	283	291	292
사회적채권	1,502	1,531	1,526	1,554	1,577	1,609	1,618	1,659
지속가능채권	275	268	254	238	237	230	261	258

(단위: 천억 원)

###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녹색채권	266	262	259	264	264	264	269	268
사회적채권	2,023	2,054	2,044	2,079	2,102	2,121	2,113	2,153
지속가능채권	186	184	177	171	171	167	166	166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 2. ESG 평가

###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4.9.30)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1	200

(단위: 건)

###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4.9.30)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530

자료: KRX ESG 포털

## 3. 기타 통계

###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4.9)

\* CF100 참여 기업 수: 165개 ('24.9)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	-	-	-	6	14	27	36	36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6	433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 2024년 ESG 뉴스레터 발간 주제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지속가능경영원

1월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2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활용
3월	ESG Digitalization과 데이터 통합관리
4월	미 SEC 기후 공시 규칙안과 영향 분석
5월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6월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7월	EU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8월	DEI 실천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9월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b>10월</b>	<b>EU 순환경제 법안 동향과 대응 전략</b>
11월	해외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12월	글로벌 기업의 ESG 연결 공시 우수사례

권우혁 연구원 | E. whk@korcham.net

김예원 연구원 | E. kyw1208@korcham.net